

[T-1]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

오늘날의 민주 노조 운동의 초석이 된 삼동회와 아카시아회

[T-1-1] 노동 소녀 [T-1-2] 옥상에서 이소선 어머니를 위로하던 사람 [T-1-3] 자발적으로 노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 [T-1-4] 아카시아처럼 온세상에 좋은 향기를 퍼트리자 [T-1-5] 전태일 50주기의 주인공들

[안재성]

안재성 | 1960년 경기 용인 출생. 강원대학교를 중퇴하고 구로공단과 강원도 탄광 지역에서 노동 운동을 했으며 1985년 청계피복노동조합에서 선전부장을 지냈다. 1989년 장편 소설 『파업』으로 제2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황금이삭』, 『경성트로이카』, 『연안행』,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명시』 등 다수의 장편 소설을 펴냈다.

\*이 글은 『청계, 내 청춘』(안재성 저, 돌베개출판사, 2013년)을 토대로 쓰여졌습니다.

## The Most Beautiful Chor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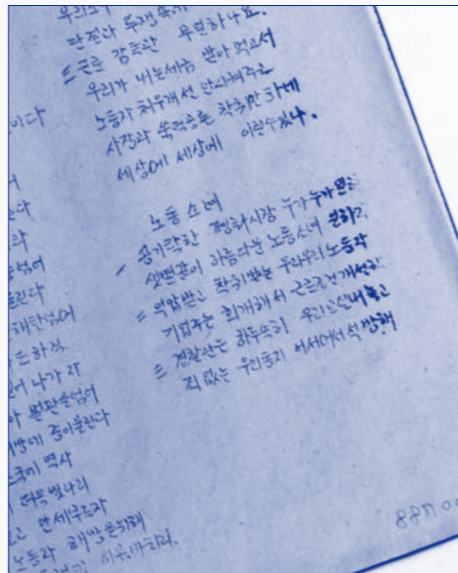
—How Samdong Association and Acacia Association Founded the Democratic Labor Union Movement Today [by Ahn Jaeseong]

### [T-1-1] A Girl Who Labors

On the 7th of November 2020, when it was still chilly, a group of people gathered in Chun Taeil Memorial in Cheonggye, Jongro-gu, Seoul. They sang songs together. They are members of ‘Cheongwu Association’, a social group branched out from Cheonggye Labor Union, which used to be the symbol of union movement of the 1970s. They came here today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Chun Taeil. They used to be in their 10s and 20s when they confronted repression from the military dictatorship and had to be arrested and jailed for their campaigns against it. But time passed and they are now seniors at 60s and 70s of age. Around 40 of them could not help recalling when they took a tour around the memorial hall and saw the exhibitions. One of them found an old newspaper from the past union called 『Cheonggye Labor News』. There was a lyric written on it. She read it out loud to the tune she thought she forgot. Actually, the tune came from a popular song called <A Girl Who Labors.> | “Look who’s there in the dirty air of Pyeonghwa Market / It is no more than a girl who labors / Look who get exploited and repressed / It is no more than us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3층의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의 한 장면.



노동 가요 가사집 중에서 <노동 소녀> 부분.

© (Suryuanbang) Lee Jheeyeung

### [T-1-1]

### 노동 소녀

초겨울 추위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던 지난해(2020년)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05번지에 있는 전태일기념관에서는 한 작고 아름다운 합창이 이뤄졌다. 1970년대 민주 노조의 상징이던 청계노조 조합원들의 친목회인 ‘청우회’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가진 모임이었다. 적게는 16살부터, 많아야 20대 중반의 나이에 청계노조 조합원이 되어 엄혹한 군사 독재와 싸우느라 수도 없이 연행되고 감옥살이를 하던 그들은 이제 대부분 60~70대 노년이 되어 있었다. 추위보다 더 매서운 코로나의 위협 속에 마스크를 쓰고 모인 40여 명의 청우회원들은 간소한 기념식을 마친 후 윗층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청계노조 관련 자료들을 둘러 보며 옛날을 회상했다. 이때 문득, 벽에 걸린 『청계노보』 앞에 선 여성 회원들이 노보에 적힌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시 유행하던 대중 가요에 가사만 바꿔 만든 <노동 소녀>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 “공기 탁한 평화시장 누가누가 일하나 / 샐벌같이 아름다운 노동 소녀 일하지 // 억압받고 착취받는 우리 우리 노동자 / 기업주는 회개해서 노동 조건 개선해 // 경찰관은 하루 속히 우리 교실 내놓고 / 죄 없는 우리 동지 어서 어서 석방해” | 샐벌 같은 소녀들이 노동 교실에서 공부하며 불렀던 노래였다. 긴 세월이 지나 다시 부르건만 그때의 감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두어 명이 시작한 노래는 네 명, 다섯 명으로 늘어나, 이윽고 전시장의 여성 조합원들 모두가 함께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듣는 이들도, 눈물을 감출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었다.

laborers / Business owners should improve the conditions / Police should return our classrooms / and release the labors they took in.” | Each of them used to be the one who labors. They used to sing this song in the classroom under repression while being exploited. One started to sing, two or three joined in. Then the whole gathering sang. Who could hold the tears at a scene like this? No one. It was the most beautiful chorus in the world.

#### [T-1-2] She Consolated the Mother on the Roof

The eldest of the gathering, **Park Myeongok**, was so shocked when she heard the news about Chun Taeil that she immediately went to a union herself and became a fighter. That was when she was also a laborer. She started working as a sewing machine operator at an age of 14. Her father fell ill and there was no source of income for her family. She had no choice but to be stuck in Pyeonghwa Market a hundred hours a week. Every week. | It was November 13th, 1970 when she heard the name, ‘Chun Taeil’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The anchor talked about his death. People around her heard the rumor, too. They were murmuring how a gangster member started a demonstration, voicing a better working condition and how the campaign went as far as to torch himself. A brutal suicide, they said. | ‘He was driven to



1970년 11월 18일 모란공원 묘지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장례식.



1970년 11월 18일 전태일 열사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은 이소선 어머니와 최종인.

#### [T-1-2]

#### 옥상에서 이소선 어머니를 위로하던 사람

올해 팔순으로, 이 날의 참석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박명옥** 씨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에 충격을 받고 자기 발로 노동 조합을 찾아가 노동 운동을 시작한 여성 노동자의 한 명이다. 청계천이 복개되기도 전인 14살 때부터 미싱사로 일해 온 박명옥 씨는 6년만에 폐병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 평화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일주일에 100시간이 넘는 중노동을 하고 있었다. |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1970년 11월 13일 오후, 작업장의 라디오를 통해서였다. 하루종일 켜 놓는 조그만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뉴스 시간에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이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다. 소문을 듣고 온 미싱사들도 말했다. “어떤 깡패가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고쳐 달라고하다가 죽었대.”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고, 혼자 불에 타서 죽어 버렸대. 아휴, 무서워!” | 다들 깡패가 불타 죽었다며 무서워 했다. 박명옥은 그러나 전태일이라는 사람에게 도리어 호감이 가는 것이었다. 청계천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5년째, 사장들의 횡포를 사무치게 겪어 온 그녀였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오죽했으면 죽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며칠 후였다. 점심을 먹고 온 미싱사들이 죽은 이의 엄마가 평화시장 옥상으로 오르는 계단에 앉아 있더라는 말을 했다. 죽은 이의 친구들과 엄마가 시장 옥상에 무슨 사무실을 차리려는 데 잘 안 된다는 것이었다. 타고나기를 인정이 많은 박명옥



1971년 11월 전태일 열사 1주기 추도식에 모인 사람들.

kill himself’ was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her mind. After 15 years of labor, she knew what he must have gone through. It was him that day, but on another day it could have been her. | A few days later, after lunch, the coworkers came back to the factory, talking about someone was climbing up the stairs to the roof of Pyeonghwa Market. They said it was Chun’s mother. Somebody even said Chun’s friends and mother tried to set up an office, only to be interrupted by authorities. Park felt, again, sympathetic. ‘What if I died that way? How heartbreaking must it be for my mother?’ | She decided to find her. A small lady in her late 40s was sobbing on the stairs, with her head buried in her knees. It was her, Lee Soseon. Park sat next to her, and put her hand on her back. “What a loss. I

이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슬퍼할까?’ | 혼자 그 곳을 찾아가 보았다. 정말로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쪽진 머리를 한 자그마한 40대 여인이 계단에 앉아 무릎에 머리를 박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이소선 어머니였다. 박명옥 씨는 조용이 곁에 앉아 여인의 등에 손을 얹고 말했다. “아드님을 그렇게 잃으셔서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어머니의 울음 소리는 더 커졌다. 박명옥도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으며 위로하려 애썼다. “어머니, 그만 우시고 힘을 내세요.” 말하는데 기어이 엉엉 울음이 나왔다. 그렇게 한참이나 울다가 현장에 돌아와 일을 하고 있으려니 처음 보는 잘 생긴 청년이 찾아왔다. 박명옥이 이소선 어머니를 위로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공장까지 따라왔다는 것이었다. 최종인이었다.

최종인은 전태일과 함께 청계천 일대 봉제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자 재단사 모임인 ‘삼동회’를 만들고 활동했던 한 사람이다. 전태일을 비롯해 최종인, 이승철, 임현재, 김영문, 신승철, 김태원 등 삼동회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 시간 단축 등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두 차례 시위를 주도했는데, 경찰의 방해로 거듭 실패하자 끝내 전태일이 분신, 사망한 것이다. | 이소선 어머니는 아들이 생명을 바쳐 요구한 노동 조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장례에 응했으나 정부와 평화시장 업주들은 장례식이 끝나자 사사건건 방해하고 나섰다. 노동 조합이란 조합원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업주들은 노동 조합을 깡패들이 하는 거라며 악선전을 하고 근처에도 못 가게 막으니 결성식에 필요한 최소 인원도 모으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차에 자기 발로 이소선 어머니를 찾아와 위로하는 박명옥이 삼동회원들의 눈에 띈 것

canno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losing a son like that.” The sob turned to a cry. Park could not help crying herself. They sat there together for a while. Park went back to her workplace, not knowing someone was following. The follower was Choi Jongin. | Choi Jongin was a friend of Chun Taeil. The two founded ‘Samdong Associ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labor condition for the workers in the Cheonggye region. The group asked for shorter working hours and higher wages. They planned for a demonstration but the police did not allow them. The failed attempts resulted in Chun’s setting himself on fire, and eventual death. | The government and the owners of Pyeonghwa Market made a promise that they would allow an office for the labor union in order for Lee Soseon, his mother, to come to the funeral they held. But the promise was never kept. They spread rumors that the union was just another name for gangsters, discouraging people to join.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of no wonder Park’s behavior caught the attention of Choi. | Choi introduced himself and asked her to pay a visit to the union office on the roof of Pyeonghwa Market. She said no to him first, saying she had no time. Choi came back the next day, asking her to participate in an important event they were holding. This time, she said yes, only to find out later it was a founding ceremony of Cheonggye Labor Union. It was November 27th, 1970, two weeks after Chun’s death.



평화시장 옥상에서 이소선 어머니와 노조 사무실 경리와 함께 찍은 사진.



바보회 창립 즈음, 평화시장 옥상에서 전태일.

이다. | 최종인은 자신을 전태일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평화시장 옥상에 사무실을 열었으니 놀러 오라고 부탁했다. 박명옥은 한가하게 놀러 다닐 시간이 없다며 거절해 보냈으나, 최종인은 다음날 다시 찾아왔다. 중요한 행사를 하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부탁이었다. 최종인의 정중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린 박명옥은 무슨 행사인지도 모르는 채 참가하겠다고 약속했다. | 행사에 가고서야 ‘청계노조’ 결성식임을 알았다. 전태일 분신 2주일만인 1970년 11월 27일이었다. 노조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채 운영 위원을 맡은 박명옥 씨는 결혼을 하게 되는 1977년까지 부지부장 등으로 활동했으며 건강이 허락한 70대 나이까지 봉제 노동자로 일해 왔다.

[T-1-3]

### 자발적으로 노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

초창기 청계노조가 자리잡는 과정에는 박명옥 씨와 같이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해 활동한 여성 노동자들이 큰 힘이 되었다. 살아생전 전태일과 함께 일했거나 같은 동네에 살아 잘 알고 지내던 임영란, 황명옥, 이정희, 김명례 등과 자기 발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온 임금자, 유정숙, 정선희, 이숙희 같은 여성 노동자가 그들이었다.

전태일 분신 당시 **임금자**는 16살이었다. 동문시장에서 미싱을 하고 있던 그녀는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칼국수를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다가 사람이 불길에 휩싸인 채 뛰어다니며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놀라서 달려가 보니 불에 타 쓰러진 이

Park became a member and took various roles till 1977. She worked as a sewing machine operator till her 70s.

### [T-1-3] Female Laborers Volunteered to Join

The growth and strengthening of the labor union in the early stage have a lot to do with female workers like Park, who voluntarily joined in the movement. One of them was **Lim Geumja**. | She was 16 when Chun Taeil died. She was working as a sewing machine operator at Dongmun Market. She was standing in a queue for lunch when she saw a man on fire, all burning, running around and shouting. She was shocked at the sight but soon the crowd surrounded the man, and she could not see him anymore. Nor did she know why he did what he did. | A few days later, a man who claims to be the dead man's friend, came around, putting up posters on the walls. Lim approached him and asked what happened. It was Lim Hyeonjae. He told her that Chun died for laborers like her. And he asked for her to come to the founding ceremony of the labor union. Since then she had been an irreplaceable member of the 1970s union campaign.

**Kim Myeongrye** on the other hand was a neighbor of Chun. She was in her late 20s and also a sewing machine operator. She knew Chun but did not know what he was up to. Only after his death, she realized



1971년 9월 12일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제1차년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단상에 선 이소선 어머니. 1973년 제3차년도 대회에서는 제3대 지부장으로 '삼동회' 출신 최종인이 선출된다.



평화시장 옥상에서, (앞줄 왼쪽부터) 전명순, 이소선 어머니, 황○, 임영란. (뒷줄 왼쪽부터) 최종인, 양승조, 이승철.

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보이지 않았고 왜 그랬는지도 알 수 없었다. | 며칠 후, 임금자는 죽은 이의 친구라는 한 남자가 벽보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먼저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물어 보았다. 삼동회원 임현재였다. 임현재는 16살 밖에 안 된 임금자에게 친절한 존댓말로 전태일이 나쁜 사람이 아니며, 청계천 근로자들을 위해 죽었다고 설명해 주며 노동조합 결성식을 하니 꼭 와 달라고 부탁했다. 임금자는 평화시장 옥상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열린 결성식에 자진해서 참석했다. 그리고 1970년대 내내 노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으로 활약했다.

**김명례**는 전태일의 이웃집에 살던 당시 20대 후반의 미싱사였다. 인사성 밝은 전태일은 김명례를 누나라 부르며 잘 따랐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정확히 말해 주지는 않았다. 분신 사건이 난 후에야 그 착하디 착한 전태일이 남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명례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회사도 나가지 않고 명동 성모병원으로 달려갔다. | 요즘과 달리 병원 안에 장례식을 치를 공간이 없던 시절이었다. 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영안실에서 시신을 찾아 집이나 교회에 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김명례가 달려갔을 때, 영안실 접수대 앞의 조그만 공간과 통로에는 동네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뿐, 먹을 것 하나 없었다. 병원에서는 장례를 치르지 않으니 식당도, 음식 배달도 없었다. | 무엇을 도울 것인가 생각하던 김명례는 집에 가서 들통으로 가득 팔죽을 끓였다. 그리고 무거운 들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다. 다음날에도 회사에 나가지 않고 다시 팔죽을 끓여 와서 나눠 가며 영안실을 지켰다. 그리고 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부녀부장을 맡아 활동하게 된다.

what he was going through and what kind of battle he was fighting. She skipped work that day, and went to Myeongdong Seongmo Medical Center where his body was kept.

| When she arrived, she saw a group of people in despair, speechless, and nothing to eat. Back in those days, funerals were not held in the hospital. So, Myeongrye went back home and made porridge. A whole big bucket of it. She carried it to the hospital and shared it with Chun's acquaintances. She did the same the next day. That is how she became a member of the labor union.

| **Yu Jeongsuk** was a 22-year-old sewing machine operator at Shin-Pyeonghwa Market. On the day of Chun's death, her workplace suffered outage, thus no power to operate sewing machine. She sat there waiting for the electricity to come back. But someone came in with the tragic news. Hearing someone's suicide spoiled the mood and everyone went back home that day, including Yu. | It was only the next day when Yu found out what really happened. Coincidentally, she had a father who had been fighting against the dictatorship. She went up to the union office on the roof and saw Lee Soseon. She opened the door, held her hand and took her inside. | Lee's story began to unfold. Yu tentatively listened. She also learned that the union members were unpaid. They often went starved. because they could not afford food. She decided to help. She was poor, too, so she



평화시장 옥상의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 사무실 앞에서. (오른쪽부터) 이승철, 전태삼, ○○○, 임영란, 이순자, 임금자, ○○○, ○○○.



청계피복노조 '제1대 지부장컵 쟁탈 등산 대회'에 참가한 '크로바 클럽' 회원들. 등산 대회는 초기 조합원들을 확충하고 단합시키는 중요한 대중 활동이었다.

「 신평화시장에서 미싱사로 일하던 당시 22살의 **유정숙**도 전태일이 분신한 날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한 사람이었다. 그 날 오후, 우연히 신평화시장에 전기가 나갔다. 전등도 꺼지고 재봉틀을 돌릴 수도 없어, 어두컴컴한 공장 안에서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밖에 다녀온 누군가가 사람이 자살했다는 불길한 소식을 전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해져 다들 작업을 하지 않고 퇴근했다. | 이튿날이 되어서야 더 구체적인 소식을 들은 유정숙은 전태일이란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반독재 운동을 하느라 가난해진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가, 평소부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던 유정숙이었다. 어느 날, 평화시장 옥상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노조 사무실을 기웃거리다가 누군가 노동자가 찾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소선 어머니의 눈에 띄었다. 이소선 어머니는 열른 문을 열고 나와 반갑게 그녀의 손을 잡아 사무실로 이끌었다. | 이소선 어머니는 유정숙의 손을 잡은 채, 자기 아들 전태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오래도록 말해 주었다. 초창기 조합 사무실에는 삼동회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남자들이 돈 한 톨 받지 않고 상근을 하고 있었는데 조합원이 없어 조합비가 걷히지 않으니 점심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이소선 어머니가 노점에서 중고옷을 팔아 번 푼돈으로 라면과 국수를 사 먹기도 벅찼다. 전태일과 그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감동한 유정숙은 무엇을 도울까 생각한 끝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팔기로 했다. 식비라도 대 주자는 마음이었다. 유정숙은 매일 점심 때마다 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한쪽 구석에 앉아 말없이 성탄절 카드를 그린 다음, 아침 저녁으로 시장을 돌아다니며 팔았다.

started selling Christmas cards she made. During breaks, she sat at a corner of the factory, drawing cards. At night, upon returning home, she sold them on the street. | The union was there, but nobody joined. The members went around from office to office to attract new ones but as soon as the managers saw the application form, they chased them out. Some let them in but then laborers themselves were uninterested. They were sure the union was no more than gangsters. | Nearing Christmas, the union decided to hang a large banner on which 'Ground Gained by Blood, Rights Gained by Unity' was written in red. They did not forget smaller banners, too, where 'how-to-join' was outlined in blue. | Then a high officer drove by the market and saw the red banner. The color reminded him of communists, and he was outraged. The police ran to the office on the roof and threatened them to eliminate the banner. The members, including the mother, Lee Soseon, did not give in. They asserted 'What kind of union is this if we cannot decide what banner we can hang?' | In order to stop the police from barging in, the members of the union started to break things. The pots flew. The paper files were scattered on the floor. The doors were sealed. In the end they spread petrol all over their bodies, determined to set fire, just like Chun. | Police officers broke the windows and jumped into the office with fire extinguishers in hand. They were all



'평화교실'('새마을노동교실'의 전신)에서 조합원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 끝까지 배움의 꿈을 접지 않았던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한 청계피복노조는 조합원 교육을 노조 활동의 최중심에 두었다.



1976년 12월에 열린 '연소 근로자 위안 잔치'. 1971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도 청계피복노조의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다. 전태일을 노동 운동으로 이끈 수많은 동심을 위로하는 것은 청계피복노조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조합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조합은 결성했으나 조합원은 늘지 않았다. 집행부가 조합원 가입 원서를 들고 공장을 방문하면 사장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밀어내거나 대놓고 욕설을 퍼부으며 내쫓았다. 재수없다고 소금을 뿌려대는 사장까지 있었다. 그래도 다시 찾아가 공손하게 부탁하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기도 했으나 노동자들도 노조를 외면했다. 조합은 깡패들이 조합비 거두어 놓고 먹으려고 하는 단체라느니, 조합원이 되면 조합비를 떼이고 갑근세도 내야 한다는 사장들의 악선전 때문이었다. | 성탄절 주간이 시작될 무렵, 집행부는 좀 더 효과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평화시장 옥상에 빨간 글씨로 '분신으로 쌓은 터전, 단결하여 주권찾자'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파란 글씨로 조합에 가입하라는 현수막도 여러 장 써서 시장 곳곳의 전봇대 사이에 달았다. | 그런데 마침 승용차를 타고 평화시장 앞 고도로를 지나던 정부의 고위 관료가 이를 보고 난리를 쳤다. 공산당처럼 붉은 글씨로 현수막을 걸었다는 것이었다. 형사들이 노조 사무실로 몰려와 당장 떼어 내라고 고함을 쳐댔다. 울분을 참지 못한 이소선 어머니와 조합 간부들은 소리쳤다. "조합원 모집 현수막 하나 걸지 못하는 노조가 무슨 노조냐?" | 조합 간부들은 노조 집기를 닦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다. 화분이 날아가 깨지고, 서류철이며 사무집기들이 바닥에 나뒹굴렀다. 나중에는 책상과 의자로 노조 사무실 문을 막고 12명이 모두 집단 분신을 결의하고 몸에 석유를 끼얹은 채 농성에 들어갔다. | 결국 경찰은 창문을 깨뜨리고 소화기로 물을 뿌려 분신을 막으며 조합 간부들 전원을 연행해 버렸다. 조합 간부들은 경찰서에 가서도 배식 나온 밥을 집어던지며 싸움을 계속한 끝에 상급 단체이던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연합노조 간부들이 보증을 서서 풀려날 수 있었으나 몰골은 엉망이었다.

arrested on the scene. The fight continued even in the police office.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had to intervene and they were released. | Upon returning to the office, which was still a big mess from the resistance, they were speechless and did not know what to start, where to begin. Some one knocked on the door. “Can I come in?” | It was Yu. She had collected 10 thousand won selling her Christmas cards. It was more than a monthly salary of a common labor. She handed that money to Lee Soseon. Then, she grabbed a broom and started cleaning. The rest followed her lead.

More female workers came in. They did not necessarily join; instead, they ran to the office and left some food or other gifts on the door without showing their faces. Some just paid a visit to talk to Lee Soseon. **Jeong Seonhui** and **Lim Geumja** were frequent stop-bys. With their high-tone, happy voices around, the office seemed brighter and merrier. They were there in all the campaigns of the union in the 1970s, happy and merry.

**Lee Sukhui**, a 17-year-old sewing machine operator, was also one of the female workers who voluntarily became a union member. She was a regular church-goer. She heard a rumor that the people in the office on the roof were singing hymns everyday. She followed the group during Chun’s funeral and found out everything about his death.



1972년 8월 31일 '평화교실'('새마을노동교실'의 전신) 제1기 수료식에서. 1972년 5월부터 시작된 1기는 200명의 응모자 중에 30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17명이 수료했다.

간부들이 돌아와 보니 조합 사무실은 깨진 화분이며 집기들이 널려 폐허 같았다. 다들 맥이 풀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서성일 때였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얄짤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도 되나요?” | 낮 익은 얼굴, 유정숙이었다. 수줍게 웃으며 들어온 그녀는 그동안 만든 카드를 팔아 마련한 돈 만 원을 이소선 어머니에게 건네왔다. 보통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넘는 큰 돈이었다. 그리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빗자루를 들고 부지런히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자들도 기운이 나서 청소를 시작했다.

스스로 조합에 찾아오는 여성 노동자는 하나둘씩 늘어났다. 조합 간부들이 밭에 물집이 가실 날 없이 상가를 돌아다니며 노조에 대해 홍보하고, 이소선 어머니는 누군가 찾아올까 기대하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노라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따뜻한 풀빵이나 호떡을 봉지채 놓고 달아나는 나이 어린 시다들이 있었다. | 16살 동갑 친구로, 평화시장에서 시다로 일하던 **정선희**와 **임금자**도 그랬다. 고된 노동과 가난에 시달리며 힘겹게 살면서도 명랑한 성격을 잃지 않은 두 소녀는 자진해서 노조 사무실에 찾아가 이소선 어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주고, 조합 사무실의 분위기를 밝게 해 주었다. 두 사람은 1970년대 말까지, 조합의 모든 싸움에 빠지지 않는다.

17살의 미싱사 **이숙희**도 자발적으로 조합을 찾아온 한 명이었다. 이숙희는 공장에 다니는 게 창피해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로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전태일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것은 사장들의 악선

She was more than happy to accept the union's request to become a representative for the union.

These women were vital. When 'Samdong Association' members were often emotional and outraged after Chun's death, they were the ones who calmly and reasonably put things in order. Also, the mere existence of young, female workers helped soothe the rumor that the union was run by gangsters.

#### [T-1-4] A Dream to Entertain — A World Full of Acacia Fragrance

In May 1971, **Jeong Insuk** became the second Head of Wives after Kim Myeongrye. Jeong was a laborer herself. She had been a member of Catholic Youth Laborers Association, It was there where she learned of union movements and visited the office to join. It was when the members were struggling to recruit more members without much success. To Jeong's eyes, it was because the union did not provide a ground for the members to get the sense that 'I belong here.' Her experience at the Catholic Youth Laborers Association started to shine. She organized smaller groups, mainly for socializing and mingling. Only then, the bondage started to form. It was early June. The season of acacia was arriving. A good day for a picnic, and it is exactly what a small group of female laborers did, on a small hillside in Guri-si.



1975년 유림빌딩(울지로6가)으로 이전한 '새마을노동교실'('평화교실'의 후신) 간판. '새마을노동교실'은 1972년 9월 15일 모범 근로 여성으로 뽑혀 청와대 모임에 초청받았던 정인숙이 육영수 여사에게 요구해 만들게 되었다. 개관식(1973년 5월 21일)에 함석헌 선생을 초청했다고 트집잡는 사용자들에게 한 달도 되지 않아 운영권을 빼앗기기도 했다. 1975년 4월 유림빌딩 3, 4층으로 이전하고 노동조합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새마을노동교실'('평화교실'의 후신)에서 수료증을 받는 장선에. '새마을노동교실'은 1977년 7월 22일 이소선 어머니의 구속과 동시에 강제 폐쇄된다. 장선애는 열세 살의 나이로 '새마을노동교실' 탈환과 이소선 어머니 석방을 내건 1977년 9월 9일의 결사 투쟁에서 가장 용감히 싸워 구류를 살기도 했다.

전과 달리 그 사람들이 매일 옥상에서 찬송가를 부른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침 장례식 날은 시장 전체가 임시 휴일이어서 마석 모란공원 장지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따라갔던 이숙희는 그 곳에서 전태일이 왜 자기 목숨을 바쳤는가를 확실히 알게 되었고, 노조를 결성할 때 대의원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듯 자발적으로 노조에 찾아온 여성 노동자의 존재는 대단히 소중했다. 그들은 친구의 죽음으로 격앙되어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곤 하던 삼동회원들이 하기 어려웠던 현장 조직을 대신했다. 사장들의 악선전으로 조합을 무서워하던 여성 노동자들은 자기들과 닮은 나이가 비슷하고 발랄한 여성들이 조합 사무실에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조합에 대한 편견을 줄여 갔다.

#### [T-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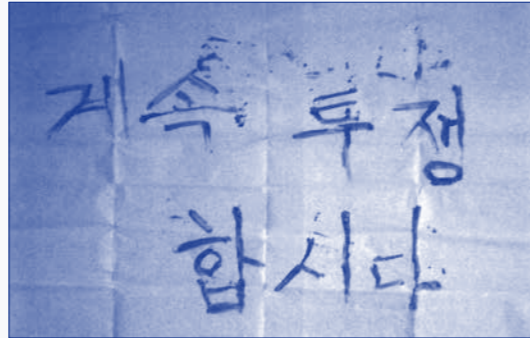
#### 아카시아처럼 온세상에 좋은 향기를 퍼트리자

1971년 5월, 김명례의 후임으로 **정인숙**이 부녀부장에 임명되었다. 정인숙은 봉제 노동자 출신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노동 운동을 배운 후 청계노조에서 부녀 부장을 영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원했다. 정인숙이 들어왔을 때도 집행부 간부들은 매일 두 명씩 조를 짜서 공장을 순회하며 조합원 가입 원서를 받고 있었으나 조직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조합에 가입을 하더라도 의식 수준을 높이거나 단결력을 높일 만한 단체 활동이 없기 때문이었다. 정인숙은 가톨릭노동청년회

The 11 of them were socializing and making bonds and took the chance to organize another group called ‘Acacia Association.’ They meant to change this world into a place full of acacia fragrance. Yu Jeongsuk was appointed as the first head.

They grew fast. Every Monday, they gathered at the union office and discussed their identities as laborers and what they should strive to improve. Each one brought along a friend to introduce and the size doubled each time the meeting was held. | So they decided to divide the group further. The smaller the group, the stronger the bond remains. Older people formed Lily Group, while the younger ones belonged to Rose of Sharon. In just 3 months, what began with 11 members grew to become a 90-strong army. The subgroups increased, too, in number. Later on, the Acacia Association became the seedbed for many more female leaders.

The Association focused on easy-to-pursue activities when training the members, all the while pursuing the rights movement. The activities were decided not by the leaders, but by all the members via heated discussions. | The activities included parties for elderly laborers, flower arrangement, bazaar, fund raising for the needy, clean language movement and so on. It was when the Chinese characters were widely used. Some people could not even open a bank



1975년 12월 23일부터 시작된 '노동 시간 단축' 무기한 단식 농성에서 김기철이 쓴 현서. 이 투쟁으로 작업장 저녁 8시 종료, 다락 첩페 등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바위술회' 회원들. '바위술회'는 열기 왕성한 남성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산하에 '야생마클럽'과 '육가클럽'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주휴제와 노동 시간 초과 단속 활동을 뒷받침했다.



1976년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야유회. 노조 운영이 안정된 1976년에는 행사마다 조합 결성 이래 최대 인원이 참여했다. 6월 아카시아 야유회에는 115명이, 10월 청계산 등산 대회에는 250명이, 전태일 6주기 추도식에는 615명이 참석했다.

에서 배운 다양한 조직 방식을 적용해 나갔다. 먼저 유정숙을 통해 현장 노동자 친목 모임을 만들었다. 부녀부장이 나서면 노조 활동이라는 부담감을 줄 수 있으므로 다정한 성품으로 널리 사랑을 받는 유정숙이 주도하도록 했다. 친목회는 금방 만들어졌다.

아카시아가 한창 꽃을 피우던 6월 초였다. 구리시 동구릉에서 연 이름 없는 친목회의 야유회에는 11명의 여성 노동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 준비해 간 도시락을 먹으며 놀다가 그 자리에서 '아카시아회'를 결성했다. 아카시아처럼 왕성하게 성장하며 온세상에 좋은 향기를 풍기자는 뜻이었다. 초대 회장은 유정숙이 맡았다. | 아카시아회는 이름 그대로 빠르게 성장했다. 매주 월요일 점심 시간에 노조 사무실에서 가진 모임에서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키우고,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같은 토론을 벌였다. 또한 각자 자기 공장에서 한 명씩 모임에 데려오기로 약속하니 신입 회원은 포도송이처럼 늘어났다.

숫자가 너무 많으면 결속력이 약해지고 각자 발언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모임의 이름은 '아카시아회'로 유지하면서, 산하 소모임을 만들어 나갔다. 맨처음 만든 모임은 '무궁화클럽', 다음 모임은 '레몬클럽'이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은 '백합',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무궁화'로 모였다.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어 나가니 불과 3개월 후인 1971년 8월 태릉에서 열린 '아카시아회'의 야유회에는 90명이나 참석했다. | '아카시아회'는 많은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고 뛰어난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는 주된 통로가 되었다. 산하 소모임의 숫자는 1971년 연

account because they did not know the language. The association opened a lecture session for such people. The activities attracted even more people. One year after the historic picnic, the membership counted over 14,000.

But in December 1980, Cheonggye union was forcefully dissolved. Acacia Association also lost ground and disappeared. Cheonggye union could become and remain a stronghold for unfairly treated laborers in the 1970s because of two essential elements : first, Samdong Association members who acted like an outer layer of shield ; and the second, Acacia Association members who organized the inside businesses and ensured the internal stability.

#### [T-1-5] 50th Anniversary and Chun Taeil

After so many decades, the bondage from the 1970s is still valid. They renamed their group to 'Cheongwu Association.' They are here now again to commemorate Chun's tragic death. Now, they are not just friends of a main hero — they are heroes and heroines themselves. They founded the cornerstone of the democratic union movement which the later generations built upon. | The generations who came after the 1970s movement tend to view the history with a degree of light assessment. They have no idea what those days were like,



1976년 '동화모임' 1기 야유회. '동화모임'은 경동교회 야학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것으로, 구속자 면회 투쟁, 임금 인상 투쟁, 9.9(1977년 9월 9일) 농성 등 중요한 투쟁에서 앞장선 열성 조합원들을 많이 배출했다.



1978년 동구릉으로 떠난 '아카시아회' 야유회. 1977년 노동교실이 폐쇄되자 모임 장소를 구할 수 없게 되어 여러 소모임들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견 여성 조합원들의 활동은 청계피복노조의 맥을 잇는 축이 되었다.

말에는 7개로, 이듬해 봄에는 14개로 늘어났다. 봉선화, 물망초, 크로바, 장미, 태양, 세븐, 레몬, 목화, 옥자매, 스마일, 일심, 코스모스 등 이름만으로도 예쁜 여성 노동자들의 모임은 노조의 든든한 바탕이 되었다.

'아카시아회'는 궁극적으로 노동자 권리 운동을 목표로 하되 작고 쉬운 일상 활동 으로부터 훈련하고 힘을 모으는 과정을 중시한 대중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활동은 회원들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결정되었는데 대단히 창의적이었다. | 연소 근로자 위안 잔치, 미용 강좌, 꽃꽂이 강좌, 바자회, 수재민 돕기, 내 집 앞 쓸기, 직장에서 시다들에게 반말 하지 않기,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자는 뜻의 '감미천운동', 아끼고 나눠 쓰자는 뜻의 '아나바다 운동'을 벌였다. 은행에 입출금 전표를 쓸 때 한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문 강좌를 열기도 했다. | 보람 있고도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아카시아회'의 다양한 활동은 조합원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아카시아회'를 통해 노동 조합과 가까워진 여성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 숫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조합원 숫자는 1년 만에 4천 명을 넘어섰다.

'아카시아회'는 1980년 12월 청계노조가 강제 해산될 때까지 초대 회장인 유정숙부터 시작해 신방식 · 김혜숙 · 이숙희 · 이봉순 · 전덕순 · 정선희 · 신순애 · 최옥분 · 최현미 · 조미자 등이 차례로 회장을 맡아 이끄는 가운데,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소중한 이름들로 이뤄진다. | 청계노조가 1970년대 민주노조의 대표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삼동회 출신들이 방패막의 구실을 하는 가운데 수백 명

what the laborers had to face and confront, and how they had to commit their lives in countless occasions. It was an age of monster — not the ones which appear in bed time stories but the real ones that kill you. | The lyric which was sung by the members at the memorial hall is still valid, too. It goes like this.

“I came to Pyeonghwa Market to earn money / There is no one else to earn money in my family / But where is money when I am breaking my bones working / Huh, I cannot help but sighing / Huh, I cannot help but sighing / I was good and I was exploited / We as a union can make changes / We in unity will find our rights / We together will win one day / We together will win one day.”

I dare you to tell me wrong when I call the song the most beautiful chorus ever. ●

[Text by **Ahn Jaeseong**] ● He was born in 1960 in Yongin, Gyeonggi-do. He participated in the labor union in the industrial district of Guro and the mining area of Gangwon-do when he was in college. He eventually quit his studies and became a publicity manager at Cheonggye Leather Laborers' Union. In 1989, he wrote a novel, 『Strike』, and won Chun Taeil Literature Award for it. He carried on writing and has published many novels afterwards.

[Translated by **Gay MOON**]



1980년 4월 7~17일의 대규모 투쟁은 임금 인상과 10인 이상 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요구를 관철시켰다. 이 싸움은 이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1981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청계노조는 1983년 전태일 13주기 추도식을 계기로 공개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추도식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안기부의 협박을 받은 버스 기사들이 협조해 주지 않아 걸어오면서 행진을 했다. 이 사건은 5.17 이후 오랜 침묵에 빠져 있던 민주화 운동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의 ‘아카시아회’ 여성들이 맹활약한 덕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T-1-5]

## 전태일 50주기의 주인공들

‘삼동회’와 ‘아카시아회’ 회원들의 결속력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청우회’로 뭉친 이들이야말로 전태일 50주기의 주인공들이다. 민주 노총으로 상징되는 오늘날의 민주 노조 운동을 이룬 초석이 된 선배들이다. | 노동 운동의 진정한 역사를 모르는 채, 자신만의 짧은 경험에 갇혀 사는 후배들은 1970년대 민주 노조 운동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 조합주의니 개량주의라는 식의 가벼운 평가가 그렇다. 하지만 그 엄혹한 현실 속에 민주 노조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1970년대 활동가들이야말로 바로 여기에 실존하는 진정한 선배임을 알아야 한다. | 2020년 11월 7일, ‘아카시아회’ 출신들이 부른 노래 가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돈을 벌러 왔단다 평화시장에 / 집안이 가난해서 돈을 벌러 왔단다 / 그렇지만 안 벌려, 뼈가 빠져도 / 허 하고 한숨만 절로 나온다 / 허 하고 한숨만 절로 나온다 //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착한 나지만 / 여럿이 단결하면 큰힘이 된다 / 단결해서 투쟁해 권익을 찾자 / 쟁하고 이길 날 돌아온단다 / 쟁하고 이길 날 돌아온단다.”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창이다.



2020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중 '아카시아회인터뷰 영상' 중에서.

2020 전태일 50주기 ●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  
The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Chun Taeil's Self-immolation  
[T-1]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함창 (안재성)

[T-2]

## 어제의 목소리에서 오늘의 이야기로

###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에 담은 뜻

[T-2-1] 손편지 안부 [T-2-2]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T-2-3] “희망에 시달리다 잠들고 달콤한 꿈을 꾸다”

[유현아]

유현아 | 전태일기념관 문화사업팀장, 2006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시인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아무나 회사원, 그밖에 여러분』을, 2020년에 청소년 시집 『주눅이 사라지는 방법』을 펴냈다.

[T-2-1]

### 손편지 안부

존경하는 선생님께 엽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정한 손 글씨로 안부를 묻고 잘 견디라 짧게 쓰셨습니다. 손편지를 받는 일도 안부를 묻는 글도 낯선 기분이었어요. ‘낯설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다가와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과의 일상적 만남은 어색한 비밀상이 되었고 낯선 마스크는 일상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거리는 멀어져 가는 듯합니다. 과거의 시간은 여전한데 현재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전히 견디는 삶의 과정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T-2-2]

###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약점은 희망함이 적다는 것이다”

전태일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물세 살 청년 전태일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현재의 절망을 이겨 내려 했습니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찾고자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하나 바꿔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친구를 만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는 것, 8시간 노동을 지키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희망은 소수가 만끽하는 욕망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50년 전 그의 이야기가 꿈같은 이야

기일까요. 2020년 우리는 달라진 것일까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봅니다.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 [청계, 내 청춘, 나의 봄]은 50년 전 그들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시간이었습니다. 14시간씩 일해도 되는 줄, 점심은 안 먹어도 되는 줄, 시키는 대로 일해도 되는 줄, 욕먹어도 되는 줄... 한 청년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의문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결된 의문의 고리를 끊고자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던 한 노동자의 이름이 다시 현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억의 끈으로 연결된 노동자들이 모여 청계피복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노동 조합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인간의 도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계절은 봄이었고, 청춘이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 고통이 동반되지만 나아가는 것, 거창한 주제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로 채워 나가는 과정을 경험했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T-2-3]

### “희망에 시달리다 잠들고 달콤한 꿈을 꾸다”

체호프의 [Anton Chekhov, 1860~1904] 단편 소설 「방카(Vanka)」의 한 문장입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됩니다.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 현대 미술전 [따로-같이]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다정한 손을 내밀었던 시간의 연장입니다. 지구의 시간은 인간만의 시간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유기체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존에

대해 고민하는 네 명의 시각 예술가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공존은 노동자의 시간일 수도, 고양이와의 유대감일 수도, 알지 못하는 이름의 풀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일상이 50년 전의 일상과 다를까요. 여전히 삶은 오리무중이고 찾지 못한 희망에 시달리는 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꿈을 꾸습니다. 웃으며 분노하며 소리치며 자신의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50년 전의 이야기를 현재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해 준 청계피복노동조합 조합원 김영문, 박태숙, 유정숙, 이숙희 이순자, 이승철, 임현재, 정선희, 조미자, 최종인 님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의 노동 현실을 되문습니다. 자본주의 유통 구조 안에서 삭제되는 노동의 그림자를 질문해 준 반재하 작가, 거리 두기와 함께하기의 고민을 해 준 이미정 작가, 온전한 이름을 불러주기 위한 작업을 한 강은영 작가와 송보경 작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공존의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전태일 50주기 특별 기획전을 중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시명을 기꺼이 허락해 주고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역사와 함께 조합원과 만남을 베푼 마음으로 써준 안재성 작가님, 기억과 기록을 통해 전태일과 나를 연결해 글을 보내 준 조병준 작가님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현재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서사를 다정하게 써 준 주민현 시인님, 민중 미술과 전태일 정신을 드러내며 행동하는 미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준 김종길 미술 평론가님 덕분에 연결고리가

되어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50년 전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부치지 못한 편지를 생각하며 현재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서울봉제인지회 홍은희 조합원님 38년 경력 미성사의 당당한 목소리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작성하고 기획했습니다. 50년 청계피복노동조합 역사는 사료만으로도 방대합니다. 한 권의 책으로 청계피복노동조합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방대한 자료의 요청과 사실 확인을 통해 아카이빙 작업을 해 준 <수류산방>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어지는 첫 번째 책입니다.

1970년 자신을 온전히 내 주었던 전태일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단지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당연한 것에 대해 말했던 그와 그의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함께하고자 했던 많은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희망을 위해 40여 년 아들의 이름과 함께했던 이소선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2020년 ‘꿈’ ‘청춘’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아픔을 겪는, 좌절하는, 희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전시에 함께해 준 청계피복노동조합 조합원, 전태일의 친구들, 시각 예술가들과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준 많은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글을 보내 준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이어온 이야기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소소한 안부를 묻는 일상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